

TOURISM SCOPE

E-book

Volume 22
2012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적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하여,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TPO는 현재 11개국 70개 도시정부와 32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Scope〉는 이번 22호부터 독자층 확대와 가독성 증대 및 자원
절약을 위해 E-Book 으로 전환하여 발행됩니다. 구독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 〈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2 TPO Focus Culture**
알차게 즐기는 후쿠오카 여행
후쿠오카, 일본
- 04 Festival Calendar**
- 05 Special Tour**
문화 중심 도시 타이중
타이완의 새 얼굴
- 12 City Tour**
창원의 아름다운 산과 길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 16 City Theme Tour**
프랑스식 베트남 여행
베트남 호찌민
- 20 Trend & Analysis**
세계 트레일과 관광산업
- 24 TPO News**
- 26 Interview**
말레이시아 이포 시
로시디 빈 하심
(Dato' Roshidi Bin Hashim) 시장

후쿠오카, 일본

알차게 즐기는 후쿠오카 여행

일본 남단 규슈 지역의 관문 도시인 후쿠오카. 항구 도시가 오래 그러하듯 다른 대도시와 뭐 그리 다를까 싶었다. 하지만 온화한 기후만큼이나 평온한 기운이 흐르는 후쿠오카의 다채로운 풍경에 모든 신경이 춤추듯 되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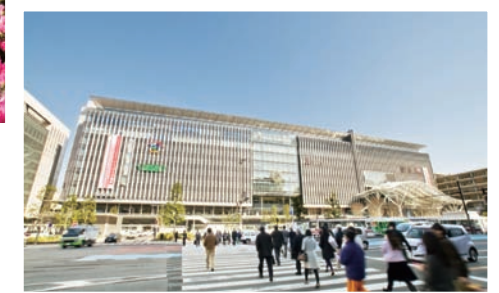
에디터 김수진 사진 <AB-ROAD> 자료실, 후쿠오카 시 경제관광문화국 www.yokanavi.com/kr



예부터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해 '규슈의 관문'이라 불렀던 후쿠오카. 일찌감치 대륙의 선진 문화를 흡수한 만큼 다이내믹한 역사를 축적하여 규슈를 대표하는 메트로폴리스로 거듭났다. 과거 역사 이야기가 담긴 관광지를 비롯해 식도락과 쇼핑의 도시 이미지가 후쿠오카에 덧입혀졌다.

2층 버스 타고 후쿠오카 한 바퀴!

후쿠오카에 도착해 어디부터 여행할지 막막하다면 '후쿠오카 오픈 톱 버스'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3월 24일부터 시작된 후쿠오카 오픈 톱 버스는 △시사이드 모모치-후쿠오카 성터(아코스-블루) △베이스이드-하카타 주변(비코스-레드) △후쿠오카 야경(C코스-오렌지) 등 3개 코스를 운행 중이다. 유럽에서나 볼 수 있던 오픈 버스가 후쿠오카 시내에 나타나자 여행자를 포함해 후쿠오카 시민들까지 들썩였다. 인기가 많아서 사전 예약은 필수! 버스에 공석이 있다면 후



쿠오카 시청 1층 로비 승차권 카운터나 버스정류장에서 당일 구입도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1500엔, 어린이 750엔으로 60~90분 남짓한 시간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오픈 톱 버스티켓으로 후쿠오카 시내의 시티 루프 버스 그린과 도심 프리 지역의 일반 버스를 무제한 탑승할 수 있으니, 교통비 비싼 일본에서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이 된다. 후쿠오카의 유명한 축제이자 일본 3대 마쓰리 중 하나인 '기온 아마가사'의 중심지인 구시다 신사는 빨간 버스를 타야 갈 수 있다. 축제 때 거리 행진용으로 쓰이는 인형과 전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가 볼거리다. 모모치 해변 바로 뒤에 있는 후쿠오카 타워를 가려면 파란 버스를 타야 한다. 약 8000장의 반투명 거울로 뒤덮인 타워는 해질 무렵 후쿠오카 경치를 조망하기 좋다. 후쿠오카 타워를 관람하고 난 뒤에는 인공 해변이지만 낭만이 넘치는 모모치 해변으로 향하자. 유럽식 건물이 부드러운 모래와 조화를 이룬다.

쇼핑 파라다이스

텐진은 하카타 역에서 약 6분 거리에 있는 후쿠오카 최대의 번화가다. 다이마루, 미쓰코시 백화점을 비롯해 각종 브랜드숍이 밀집한 지상이 전부가 아니다. 400m, 150여 개의 상점이 밀집한 지하상가 역시 텐진의 대표 쇼핑 구역이다. 180m의 운하를 따라 호텔, 쇼핑센터, 극장, 레스토랑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다양하게 자리 잡은 '커널시티'도 후쿠오카 쇼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시간대별로 펼쳐지는 음악 분수쇼와 5층에 뒤덮인 타워는 해질 무렵 후쿠오카 경치를 조망하기 좋다. 후쿠오카 타워를 관람하고 난 뒤에는 인공 해변이지만 낭만이 넘치는 모모치 해변으로 향하자. 유럽식 건물이 부드러운 모래와 조화를 이룬다.

텐진은 하카타 역에서 약 6분 거리에 있는 후쿠오카 최대의 번화가다. 다이마루, 미쓰코시 백화점을 비롯해 각종 브랜드숍이 밀집한 지상이 전부가 아니다. 400m, 150여 개의 상점이 밀집한 지하상가 역시 텐진의 대표 쇼핑 구역이다. 180m의 운하를 따라 호텔, 쇼핑센터, 극장, 레스토랑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다양하게 자리 잡은 '커널시티'도 후쿠오카 쇼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시간대별로 펼쳐지는 음악 분수쇼와 5층에 뒤덮인 타워는 해질 무렵 후쿠오카 경치를 조망하기 좋다. 후쿠오카 타워를 관람하고 난 뒤에는 인공 해변이지만 낭만이 넘치는 모모치 해변으로 향하자. 유럽식 건물이 부드러운 모래와 조화를 이룬다.

많은 메뉴 중에서도 '돈코쓰 라멘'은 반드시 야타이에서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후쿠오카 오픈 톱 버스

지붕이 없는 오픈 버스를 타고 후쿠오카 시내를 관광하는 2층 버스 코스 내 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가 자유롭다.

출발시간 A(블루) 09:30, 11:30, 14:00, 16:00, 18:00/ B(레드) 10:00, 12:00, 14:30, 16:30/ C(오렌지) 18:30 **예약 문의** 092-794-4434 **홈페이지** <http://fukuokaopentopbus.jp>



6 June, 2012



베트남, 호찌민 | 6월 서던 푸르트 페스티벌
장소 수이티엔 테파르크

6월 내내 베트남의 남부 도시 호찌민에서 탐스러운 과일 축제가 열린다. 다채로운 과일 전시, 예술 공연, 민속 게임 등을 즐기며 베트남의 전통 과일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과일 행렬과 카니발. 베트남은 물론 해외의 다양한 과일나무도 소개될 예정이다.



한국, 대구 | 6월 15일~25일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장소 대구 시내 공연장 및 상설 무대

'딤프(DIMF), 글로벌 비상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 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해외 작품을 선 보일 이번 페스티벌은 공식 초청 작 9편, 창작지원작 6편, 대학생 뮤지컬 작품 7편, 자유참가작 2편 등 총 24편을 공연한다. 스타데이트, 뮤지컬 워크숍, 강연회, 사진전 등의 부대행사도 놓치지 말자.



일본, 오사카 | 6월 14일 오타우에신지
장소 스미요시타이샤

일본 각지에서 행해지는 오타우에신지는 벼농사의 시작과 함께 유래한 축제이다. 모내기할 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보일 이번 페스티벌은 공식 초청 작 9편, 창작지원작 6편, 대학생 뮤지컬 작품 7편, 자유참가작 2편 등 총 24편을 공연한다. 스타데이트, 뮤지컬 워크숍, 강연회, 사진전 등의 부대행사도 놓치지 말자.



한국, 광주 | 6월 23일~7월 21일 페스티벌 오! 광주
장소 빛고를 시민문화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페스티벌 오! 광주는 무용, 연극, 발레, 관현악, 국악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다. 뉴욕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김영순 예술감독의 <화이트 웨이브>를 시작으로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춤추는 관현악>, 타악그룹 얼쑤의 <사평역>,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 등 총 8개 공연이 막을 올린다.

7 July, 2012



말레이시아, 코타바루 | 7월 21일~8월 18일 코타바루 라마단 페스티벌
장소 술탄 무함마드 케아иб 스타디움

코타바루 라마단 페스티벌은 무슬림의 종교적인 행사다. 무슬림은 축제 기간 동안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단식을 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하지만 해가 저문 밤에는 그 금기가 깨져 다양한 말레이시아 음식을 자정까지 무료로 제공받는다. 축제 무슬림이 아닌 일반 시민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 후쿠오카 | 7월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
장소 구시다 신사, 후쿠오카 시내

하카타의 여름은 남자들의 축제인 야마카사로 시작된다. 가마쿠라 막부 시절 전염병 퇴치를 기원하며 가마를 메고 마을을 돌았던 일이 축제로 발전했다. 전선 등의 장애물이 생기면서 가마의 높이가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날 가마를 짊어지고 경주를 하는 '오이야마(宵山)'다.



중국, 상하이 | 7월 26일~29일 차이나 조이 2012
장소 상하이 신국제 박람센터

차이나 조이는 중국 최대의 게임 쇼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십진수·신기원(十·位·新·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막된다. 중국의 다양한 게임 상품을 둘러보며, 게임에 참여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중국 게임 비즈니스 컨퍼런스,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게임 아웃소싱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6~7월 자카르타 페어 2012
장소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축제인 자카르타 페어. 약 1000명의 프로듀서와 전사가 참여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고 소개한다.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물론 해외의 유명한 제품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유명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도 진행돼 박람회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타이완, 타이난 | 6월 2일~7월 15일 모래 소금 조각 페스티벌
장소 소금산, 타이완 소금박물관, 마사고 해변

캐나다, 일본, 중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조각 전문가가 모였다. 각각의 색 테마로 이뤄진 모래 조각 15개와 소금 조각 22개가 타이난의 서해 해변에서 펼쳐진다. 만화 캐릭터, 동물, 스포츠 선수 등의 모습이 조각 작품으로 등장한다. 그중 가장 큰 소금 조각은 약 400m²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필리핀, 마닐라 | 6월 24일 마닐라의 날
장소 마닐라 시내

441번째 마닐라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마닐라의 공휴일로 지정돼 마닐라 시민 모두 하루를 쉬며 이날을 축하한다. 라이브 뮤직, 푸드 페스티벌, 콘서트, 불꽃놀이, 미술 전시 등이 시내 곳곳에서 펼쳐져 마닐라의 역사, 문화, 음식 등의 다양한 면모를 느껴볼 수 있다.



한국, 대전 | 6월 2일~3일 2012 금강 로하스 축제
장소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산·호·빛공원

'싱그러운 자연, 건강한 사람, 행복한 도시'라는 주제로 대전에서 2012 금강 로하스 축제가 개최된다. 로하스 나눔 콘서트, 로하스 해피로드 걷기, 친환경 특산물 전시회 등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체력왕 선발대회, 선사 체험, 1박 2일 캠핑 등도 진행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제격이다.



한국, 강릉 | 7월 26일~8월 7일 경포 여름바다 예술제
장소 경포해수욕장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포 여름바다 예술제는 뜨거운 여름 시원한 경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사에는 여러 예술 문화 단체의 연극, 무용, 음악 연주, 민속 공연, 미술 전시 등이 펼쳐지며, '해변노래자랑'과 같은 이벤트도 진행돼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이포 | 7월 1일 이포 인터내셔널 런 2012
장소 이포 시내

17번째 이포 인터내셔널 런 행사가 열린다. 나이와 성별에 따른 12개 카테고리 코스가 이뤄지는데, '펀 런(Fun Run)' 코스를 완주하는 선수에게는 1600개 메달과 9만 6750링깃에 달하는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국내외 해외에서 온 1만 3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 7월 7일~11일 크로스 컬처 페스티벌
장소 수라바야 시청 및 시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는 해마다 문화와 문화가 만난다. 인도네시아는 물론 중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가 모여 특색 있는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것! 나라별 춤, 노래 등은 물론 가지각색 이벤트가 모여 그들만의 색깔을 뽐내며 함께 어울려 즐긴다.

8 August, 2012



한국, 부산 | 8월 2일~5일 2012 부산 국제 맥주 페스티벌
장소 영화의 전당

세계 유명 마술가와 국내 프로 마술가, 아마추어 마술가가 함께 모여 만드는 부산 국제 맥주 페스티벌에서 마술은 하나의 문화다. 7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 상품은 둘러보며, 게임에 참여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중국 게임 비즈니스 컨퍼런스,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코스트플레이 카니발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일본, 구마모토 | 8월 히노쿠니
장소 구마모토 시내

1978년부터 매해 열리는 히노쿠니에서는 5000명 시민이 다 함께 민속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놀라운 장면을 선사한다. 여행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가사로 유머가 깃들여 있는 오테모안(おてもあん) 구마모토 민속 노래다. 간단한 춤동작을 배워둔다면 축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춤 대열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춘천 | 8월 23일~28일 2012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
장소 송암 스포츠타운

닭갈비와 막국수는 춘천에서 맛있게 유명한 음식이다. 막국수는 메밀 면에 다양한 채소와 김치를 얹어 먹고, 닭갈비는 매운 양념이 첨가된 채소와 함께 철판에 볶아 먹는 닭 요리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맛의 향연'이라는 슬로건으로 춘천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 막국수와 닭갈비는 물론 메밀전, 도토리묵 등을 판매한다.



중국, 칭다오 | 8월 11일~26일 칭다오 인터내셔널 맥주 페스티벌
장소 텐타이 스타디움, 칭다오 시내

중국 맥주 칭다오(Qingdao)를 비롯해 독일의 벡스(Beck's), 일본의 아사히(Asahi), 덴마크의 칼스버그(Carlsberg), 싱가포르의 타이거(Tiger) 등 세계의 맥주가 한자리에 모인다. 중국의 맥주 문화와 세계의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행사로 매해 8월 둘째 주 주말에 시작된다. 중국어로 건배를 뜻하는 '간베이(Gan Bei)'가 곳곳에서 들리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쉴 새 없이 흐른다. 오프닝 퍼레이드, 맥주 마시기 대회를 비롯해 가지각색 퍼포먼스가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타이완, 타이난 | 8월 4일~26일 밸런타인 카니발 인 러브 시티
장소 타이난 시내

타이완만의 색다른 밸런타인 카니발이 찾아온다. '러브 시티'로 명명된 타이난 시에서 직접 만든 문화행사로 중국식 문화가 가미된 밸런타인데이 이벤트다. 축제 기간 동안 사랑의 기운이 넘칠 타이난 시에서 지역 문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예술 행렬, 거리 퍼포먼스, 달콤한 16가지 파티, 큐피트 뮤직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문화 중심 도시 타이중(Taichung)

타이완의 새 얼굴

타이중이 뜨겁다. 타이베이(Taipei)가 메트로폴리탄의 위엄으로 빛나고,
화롄(Hualian)이 물과 산의 스펙터클로 아름답다면,
타이중은 매일이 새로운 오늘로 눈부신 도시다.
음악, 미술, 공연. 문화의 첨단이 발 빠르게 자리를 바꾼다.
타이완의 새 얼굴 타이중에 다녀왔다.

에디터 정재혁 사진 <AB-ROAD> 자료실



타이중은 문화를 키워드로 여행하면 좋은 곳이다. 오랫동안 '타이완의 문화 도시'로 불려온 곳답게 박물관, 사원, 갤러리 등 도시 곳곳에 문화 체험 장소가 많다. 그중 달리이 올드 스트리트(Daliyi Old Street)는 청나라 때 건물이 남아 있어 역사의 현장으로 유용한 곳이다. 빨간 벽돌과 독특한 아치 모양 지붕이 대륙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거리를 거닐며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다. 또한 농경 문화가 발달한 타이중은 이를 바탕으로 한 역사 공간도 많다. 완호 사원(Wanho Temple)으로 유명한 리투시엔 거리(Litoutien St)에는 농기구 숍들이 늘어서 있다. 타이완의 농경 문화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공예 작품들도 볼 수 있다. 타이완 섬의 원주민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구족문화촌을 추천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난터우(Nantou) 현에 속하지만, 타이중에서 가까워 이동이 어렵지 않다. 구족문화촌은 테마파크 포맷으로 만들어져 일반 여행자들이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9개 부족의 문화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아미족(Amis), 타오족(Thao), 루카이족(Rukai) 등 타이완 섬의 오늘을 만든 뿌리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 역사, 예술의 힘

타이중(臺中)은 한자 그대로 타이완 중심에 위치한다. 정확히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중심이지만 인구 260만의 이곳은 타이베이, 가오슝(Kaohsiung)에 이은 제3의 도시답게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타이중 현과 통합돼 일종의 메트로폴리탄 타이중이 된 이후에는 규모 면에서 웬만한 국제 도시 수준을 넘어섰다. 타이중은 싱가포르보다 세 배 크며, 홍콩 면적의 두 배다. 넓어진 땅덩이는 해변도 선물로 가져다줬다. 타이중 서쪽 지역은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다. 자연 자원과 사회 전반의 기반 시설, 기술 자원과 문화 자원 등도 풍부하다. 타이중 시는 '문화의 무대를 만들자, 쇼는 경제가 이끈다(Build a Stage with Culture, Let Economics Lead the Show)'는 모토로 도시 발전 계획을 꾸리고 있다. 도시의 자산을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문화 활동에서 완성된다는 믿음이다. 실제로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세계 3대 테너인 루치아노 파바로티(Luciano Pavarotti),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Andrea Bocelli) 등이 타이중을 찾아 공연을 가졌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타이중은 동아시아의 문화 중심지로 매일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다.



Must 10 in Taichung

타이중 핵심 정리

다카이다이 多采多藝

정밍1가 끝에 자리하고 있으며 럭셔리 앤티크 물건 위주로 판매하는 숍. 고풍스러우면서 멋스러운 조명과 시계, 그림, 조각상 등이 빈틈없이 진열되어 있다. 유럽에서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전화 886-4-2320-7567 운영시간 12:00~22:30



Shopping



Shopping

리추, 수다오유안 日出, 修道院

중세 수도원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케이크 숍이다. 가게 입구의 교회용 의자에는 사탄과 수도사가 나란히 앉아 있다. 이 특이한 가게에서는 의외로 케이크를 판다. 치즈의 기원이 중세 유럽의 수도원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인테리어한 곳으로, 선물용 케이크 패키지가 예쁘다.

전화 886-4-2328-9410 운영시간 12:00~22:30 가격 파인애플 케이크 120~600뉴타이완달러, CD 케이스 디저트 케이크 90~120뉴타이완달러

춘수당 春水堂

이곳이 바로 쫄깃하게 씹는 맛과 밀크티의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진 버블티의 원조 가게! 버블티는 타이완어로 '찐주나이차(珍珠茶)'라고 한다. 진주같이 생긴 타피오카 열매를 홍차와 우유를 섞은 밀크티에 넣어 마신다.

전화 886-4-2259-2567 운영시간 08:30~23:30 가격 찐주나이차 55 뉴타이완달러, 차(아이스) 45~70뉴타이완달러, 과일차 55~100뉴타이완달러, 라테 65~75뉴타이완달러



Food



Food

칭성 호텔 레스토랑 景聖樓飯店

르웨탄을 바라보게 설계된 칭성 호텔은 전망에서는 어느 호텔도 따라올 수 없다. 호텔 1층에 위치한 식당은 통유리를 통해서 르웨탄 전경을 즐길 수 있다. 이곳 메뉴 중 주목할 것은 타이완의 별미 '총통어(總統魚)'. 아달아들한 생선살이 감칠맛나게 맛있다.

전화 886-4-9285-5366 가격 총통어 1마리 900~1000 뉴타이완달러 홈페이지 www.chingsheng.com.tw



Shopping

태양빙 太陽餅

타이중의 대표 기념품. 태양빙은 월병과 비슷한 과자로 안에 꿀과 메이플 시럽, 흑설탕 등 갖은 재료를 넣고 구워낸다.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도 판매하고 있다.

가격 선물세트 100~800뉴타이완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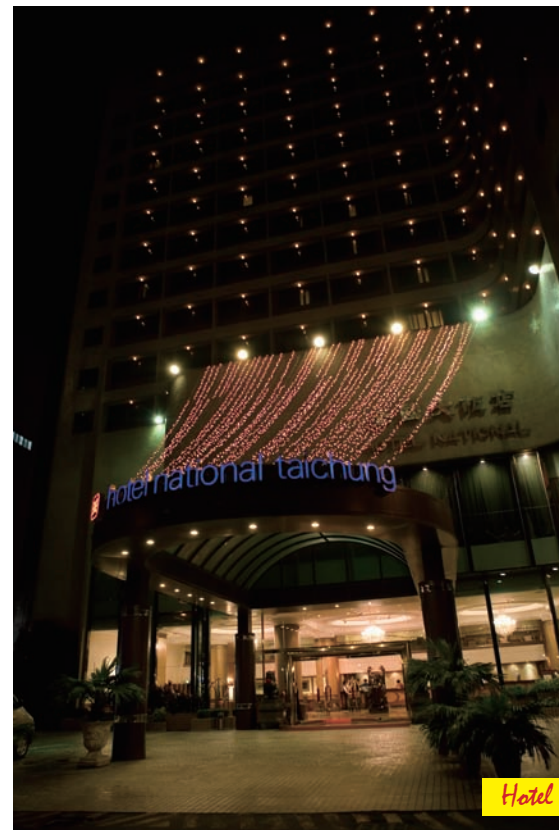
패티스 카페 Fatty's Cafe

정통 이탈리아 가정식 레스토랑이다. 간판부터 이탈리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직접 수제 반죽해 화덕에서 구워 나오는 피자는 기름기가 쪽 빠진 대신 바삭하고 고소하다. 파스타는 4가지 면 중에 고를 수 있으며, 애피타이저와 샐러드도 맛있다.

전화 886-4-2328-0698 운영시간 11:30~23:00 가격 피자 300~390뉴타이완달러, 파스타 310~350뉴타이완달러 홈페이지 www.fattys.com.tw



Food



Hotel

호텔 내셔널 타이중

Hotel National Taichung 全國大飯店

두 개의 빌딩으로 이루어진 국립자연과학 박물관에 인접한 호텔로 1971년대에 지어졌지만 객실 내부나 로비 등은 5성급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호텔. A동과 B동은 A동 4층의 구름다리 연결되어 있으며, 아침식사는 B동 1층의 가든 커피숍에 차려진다.

전화 886-4-2326-2288 홈페이지 www.hotel-national.com.tw

더 스피글렌더 The Splendor 日華金典酒店

외국인들도 즐겨 애용하는 5성급 호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12층에 로비가 설치된 스피글렌더 호텔은 타이완에서는 보기 드물게 웰컴 드링크와 헬스장, 사우나, 에어로빅 룸 무료 이용, 무료 데일리 신문 배달 서비스 등이 특징. 소고 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어 쇼핑하기도 편리하다.

전화 886-4-2328-8000 홈페이지 www.thesplendor-tc.com



Hotel



Hotel

플라자 인터내셔널 호텔

Plaza International Hotel 通豪大飯店

단체 관광객에게 안성맞춤인 4성급 호텔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관광과 비즈니스에 모두 알맞은 호텔이다. 싱글룸에는 커플을 위한 킹 사이즈 침대가 있다. 호텔 6층에 골프 퍼팅 그린도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도 이용 가능하다.

전화 886-4-2295-6789 홈페이지 www.taichung-plaza.com

타이완관광청에서 운영하는 '투어 버스'

북·중·남·동부 지역 30개 노선을 운영한다. 개별적으로 이동이 어렵거나 중국어를 잘 모르는 여행자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으로 반일부터 1일, 2일 일정이 마련돼 있다. 모든 노선의 상품은 100% 예약제로, 각 상품 소개에 나온 여행사로 문의 메일을 보내면 된다. 모든 상품에 가이드 팁, 보험 등이 포함되며, 부분 식사와 입장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살펴본다.

홈페이지 www.taiwantourbus.com.tw



Tour

경상남도 창원

창원의 아름다운 산과 길

서울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2시간 40분이면 도착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은 애초 '공업 도시'로 이름이 높았다. LG, GM코리아 웨보레, 포스코 특수강, 두산중공업, STX 해양조선 등 창원에 입주한 기업체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실제 찾은 창원은 쾌적하고 근린 시설 많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였다. 공공자전거 '누비자'를 비롯해 19개의 자전거 여행 코스, 푸르른 산과 함께하는 8개의 등산 코스, 6개의 하이킹 코스 중 창원의 하이킹 코스를 찾아 떠난 가벼운 발걸음!

에디터 김수진 사진 저성진(JIS 스튜디오) 취재 협조 창원시 관광진흥과 www.changwon.go.kr



봉암수원지 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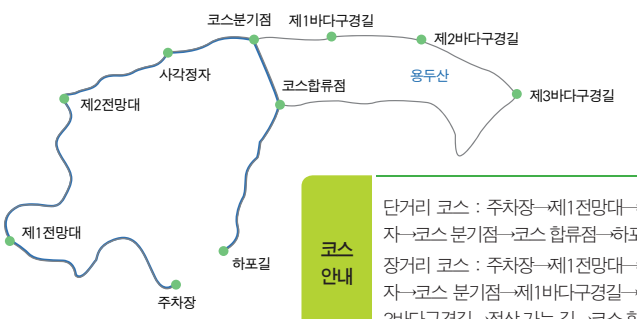
봉암수원지는 일제강점기인 1928년 마산 일원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마산 자유무역지구 3공구 맞은편에 위치하는 데도 길을 걸은 지 5분도 채 안 돼 도시와 단절된 호젓한 숲길이 나타난다. 숲길 끝에 다다르면 제방이 나오고, 이곳을 오르면 깨끗한 수원지가 펼쳐진다. 수원지 둘레길은 약 1.5km로 봉수정을 비롯해 길 곳곳에 쉼터와 의자가 배치되어 편안하게 쉬면서 숲 속 호반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에는 물안개가 자욱한 멋진 풍경도 볼 수 있다. 둘레길이 짧아 쉬다면, 웰빙 광장에서 팔용산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타면 된다.



코스 안내	버스정류장(출발)→제방→수원지 둘레길(설해교→봉수정→월명교→웰빙 광장→운호교→수만교)→약수터
총 길이	약 4.5km
소요시간	2시간

저도 비치로드

연륙교가 생겨 물이 된 섬, 저도. 저도 비치로드는 말 그대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해안길이다. 소나무가 우거진 오솔길이라 바다를 향해 탁 트인 전경은 덜하지만, 대신 여름철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다. 구불구불 해안선을 따라 가볍게 걷는 길이 대부분이지만, 사각정자에서 코스 분기점에 이르는 길과 제3바다구경길부터 정상 가는 길까지는 생각보다 가파르다. 코스별로 적절한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코스 분기점에서 단거리 코스만 걸을지, 장거리 코스로 향할지 조절할 수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코스 안내	단거리 코스 : 주차장→제1전망대→제2전망대→사각정자→코스 분기점→코스 합류점→하포길 장거리 코스 : 주차장→제1전망대→제2전망대→사각정자→코스 분기점→제1바다구경길→제2바다구경길→제3바다구경길→정상 가는 길→코스 합류점→하포길
총 길이	단거리 코스 4.3km, 장거리 코스 6.6km
소요시간	단거리 코스 약 1시간 10분, 장거리 코스 약 2시간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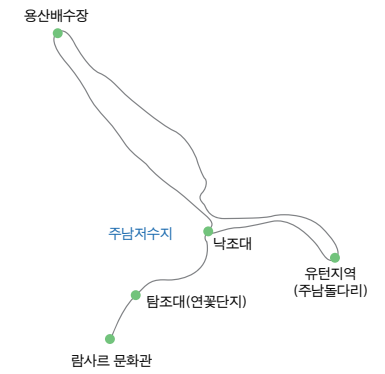
같이 가보자!



해양 드라마 세트장

평소 한국 역사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다면 금세 눈치 챌 정도로 <공주의 남자>, <무사 백동수>, <김수로>, <야차>, <근초고왕>, <짜파>, <계백> 등 다양한 작품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6개 구역 총 25채의 건축물은 옛 가야 시대의 아찰장, 선착장, 저잣거리, 마구간, 각종 무기류, 생활용품 등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드라마 촬영 때는 관람이 제한되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해두자.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770 전화 055-248-3711 운영시간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코스 안내 람사르 문화관-탐조대(연꽃단지, 무논조성지)-낙조대-용산배수장-주남저수지-주남둘다리-낙조대-람사르 문화관

총 길이 약 7.1km

소요시간 약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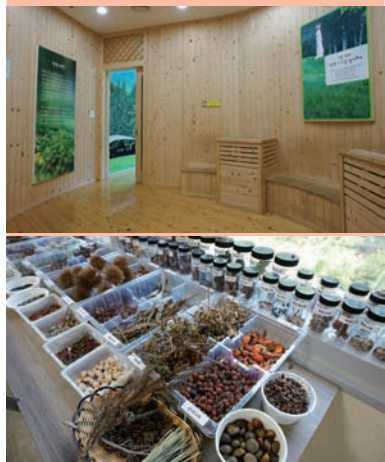
주남저수지 탐방 둘레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수지는 매년 11~3월 초면 이곳을 찾는 수십 종의 철새들과 철새들의 아름다운 비행을 보려는 여행자들이 북적인다. 물론 여름철에도 물총새, 중대백로, 황로, 해오라기, 꾀꼬리, 개개비 등이 주남저수지를 찾는다. '제10차 람사르 총회'의 창원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람사르 문화관에서 출발한 둘레길은 생태학습관을 지나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제방길을 따라간다. 해마다 7~8월이면 연꽃을 비롯한 수생식물이 저수지를 가득 메워 푸른 초원을 연상케 하는 장관이 걷는 재미를 배가시켜준다. 용산배수장에서 서부터는 저수지 대신 푸른 보리와 벼가 무성한 논길을 걷는다.

진해 드림파크 *쉽게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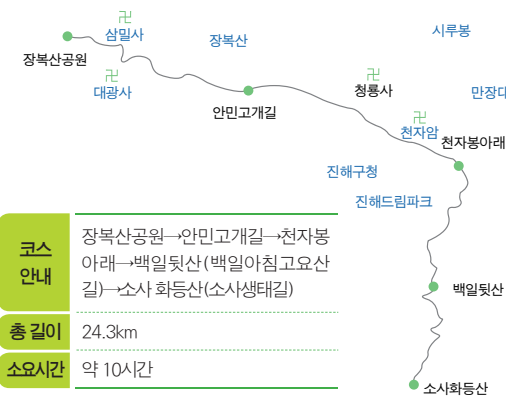
진해 드림로드를 걷는다면, 진해 드림파크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총 면적 1.5km²의 숲은 자연 생태계의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 체험·학습할 수 있는 진해만 생태숲과 나무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목재 문화 체험장, 광석골 쉼터, 청소년 수련원 등으로 이뤄졌다. 진해만 생태숲에는 한국 최초 실내 산림욕장이 마련됐는데, 편백나무와 솔향이 가득한 곳에 들어서는 순간 온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 편백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목공예 프로그램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프로그램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jinhaedreampark.kr



진해 드림로드

진해 드림로드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4개의 길(장복하늘마루길, 천자봉해오름길, 백일아침고요산길, 소사생태길)을 통틀어 말한다. 거리도 길거니와 하루에 모두 둘러보는 것이 무리라면 장복하늘마루길에서 안민고개길, 천자봉해오름길로 이르는 루트를 추천한다. 진해구가 자랑하는 길인만큼 경치나 길의 상태 모두 훌륭하다. 진해 앞바다가 탁 트인 하늘마루길을 지나면, 편백나무를 비롯해 가지각색의 나무 군락이 번갈아가며 도보 여행자를 반긴다. 해오름길 중간에는 해군 테마공원, 유격장 체험 시설, 벤치, 화장실 등이 있어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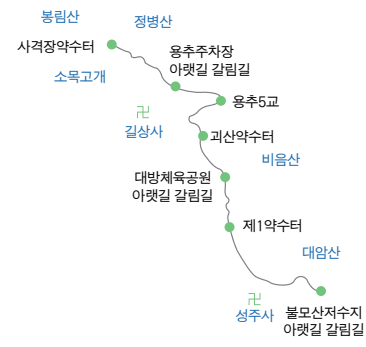
코스 안내 장복산공원-안민고개길-천자봉아래-백일뒷산(백일아침고요산길)-소사 화등산(소사생태길)

총 길이 24.3km

소요시간 약 10시간

숲 속 나들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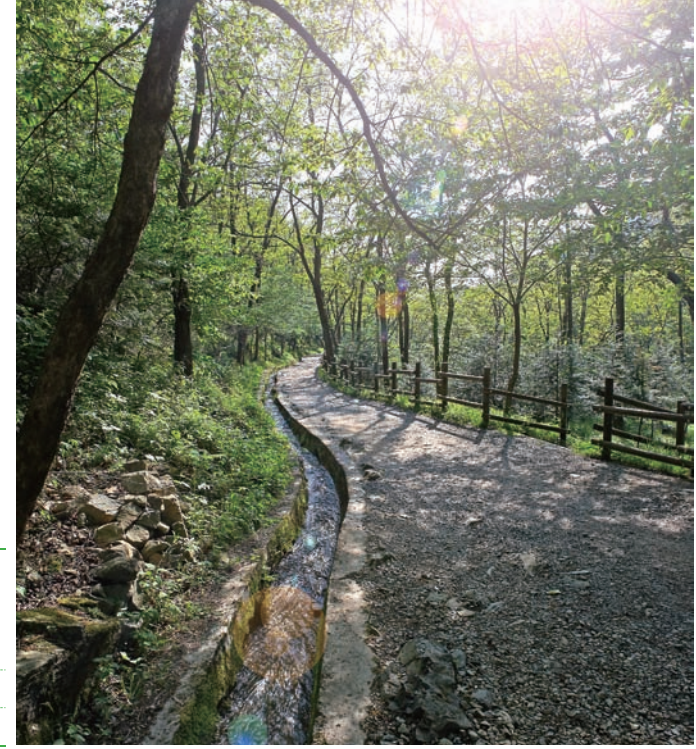
창원 시가지를 빙 둘러싸고 있는 정병산과 비음산, 대암산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하이킹 코스로 진출입하기가 여타 코스에 비해 쉬운 편이다. 편백나무숲, 소나무숲을 비롯해 산의 능선을 타기 때문에 삼림욕 효과도 큰 편. 중간에 약수터도 있어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은 행운이다. 숲 속 나들이길은 워니 워니 해도 천천히 숲을 즐기며 걸어야 한다. 아늑한 숲과 평탄한 흙길에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몸은 생기를 얻는다. 코스가 길어 하산하고 싶다면 택시 잡기도 쉽고 창원중앙역과 가까운 용추주차장 방면이 좋다. 물론 어느 길로 내려와도 공장 시내로 들어갈 수 있다.



코스 안내 사격장약수터-용추주차장 아랫길 갈림길-용추5교-괴산약수터-대방체육공원 아랫길 갈림길-제1약수터-불모산저수지 아랫길 갈림길

총 길이 16km

소요시간 약 4시간 30분



무학산 둘레길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무학산은 한국의 100대 명산에 꼽히는 곳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학을 닮았다'고 전해진다. 둘레길에 무학산 등산로로 이어지는 길이 많으니, 무심히 걷다 보면 언제 등산로로 들어섰는지 알 수 없지만 친절하 이정표 덕분에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광명암에서 봉국사에 이르는 길은 마산회원구와 마산 앞바다인 합포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전망 코스! 날씨가 좋으면 창원시의 랜드마크인 마창대교와 돌섬 등을 볼 수 있다. 무학산 둘레길 역시 다른 둘레길과 동일하게 편백나무숲을 만날 수 있다.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좋은 피톤치드가 풍부하므로 이 길을 걸을 때는 특별히 천천히 큰 숨을 들이켜면서 걸길 바란다.

코스 안내 밤밭고개-만날공원-완월폭포-서원곡-무학농장-관각정-두척약수터-구술골소류지-중리역삼거리

총 길이 21km

소요시간 약 6시간



창원시 관광 안내

개요 기존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통합창원시로 출범했다. 통합 이후 창원시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성산구, 진해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됐다.

교통

철도 KTX : 서울역 ↔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새마을호, 무궁화호 : 서울역 ↔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진해역, 종리역

버스 서울동서울터미널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09:00~17:30, 1일 4회) / 마산터미널(07:30~22:00, 1일 11회) / 서울고속터미널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06:10~00:30, 1일 37회) / 마산터미널(06:05~01:00, 1일 45회) / 서울남부터미널 ↔ 진해시외버스터미널 (06:00~23:10, 1일 12회)

항공 김해국제공항에서 진해(06:35~18:20, 1일 5회) / 마산·창원(07:00~21:50, 20~25분 간격)행 공항리무진 버스를 탑승하면 된다.

공공자전거 누비자

거추장스럽게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창원 시내 총 224곳에 자전거 터미널이 있어 대여, 반납이 손쉽다. 여행자에게는 '1일 이용권'이 적합하다. 자전거 터미널의 키오스크에서 직접 1일 이용권 결제와 대여를 할 수 있다. 1일권 가격은 1000원. 애플과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Smart Nubija'를 검색하면 자전거 터미널 위치와 반납·대여, 자전거 주행 기록과 경로 등을 알려주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1577-2114, http://nubija.changwon.go.kr



역사와 문화로 들여다본 호찌민

프랑스식 베트남 여행

호찌민은 아시아의 파리다.
 프랑스 식민의 역사가 도시 곳곳에 남긴 건축물과 거리의 정서는
 아시아에서 맛보기 힘든 특유의 정취다.
 호찌민을 여행했다. 역사의 길을 따라 찾아간 길 위에
 아시아가 담아낸 프랑스의 유산이 있었다.
 프랑스식 베트남 여행. 호찌민의 속살이 보였다.

에디터 정재혁 사진 (AB-ROAD) 자료실



문화는 종종 역사의 뒷면이다. 잔인하지만 가끔은 대가다. 전쟁과 침략, 약탈과 살육의 아픔 후에 남은 것은 그래도 유산이란 이름의 상처다. 베트남의 호찌민을 떠올릴 때면 이 아이러니가 사무친다. 고통의 시간은 단단히 굳어 역사의 훈장이 됐고, 기록의 유물은 어느새 후세의 학교가 됐다. 프랑스의 식민지로 무려 200여 년을 보낸 도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맹렬하게 기세 싸움을 했던 현장. 호찌민에서 과거와 현재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며 도시의 앞뒤를 장식했다. 문화는 곧 역사가 되고, 역사는 곧 문화로 완성된다.

호찌민은 쉽게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로 설명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시아 여행이 인기를 얻고, 베트남 쌀국수가 유행하면서 호찌민은 그저 남국의 풍광 좋은 여름 여행지로 소개됐다. 하지만 호찌민은 <미스 사이공>이 스케치한 이별의 정서, 트란 안 흥의 영화가 그려내는 고풍과 그리움이 짙은 도시다. 중국과 프랑스의 건축 양식을 융합해 지은 역사박물관(Bao Tang Lich Su), 에펠탑을 설계한 귀스타브 에펠이 만든 중앙우체국(Central Post Office) 등 명소들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아련하다. 동양의 애절함과 만난 유럽 고유의 양식은 어딘가 우수의 빛깔을 자아낸다. 도심 곳곳에 자리한 공원과 그저 행복한 여유만을 품고 있진 않다. 호찌민 거리를 거닐다 보면 자꾸 외로움의 맛, 고독의 재미를 찾게 된다. 호찌민은 그래서 매력적인 도시다. 베트남 제1의 도시지만 호찌민은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루 여행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 유적지와 명소,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도시 중심에 모여 있다. 자전거나 시클로를 렌탈하면 조금 먼 외곽까지도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저 발길 가는 대로



돌아본 뒤 저녁의 유흥거리를 찾아도 무방한 도시다. 짜인 일정보다는 기분대로 돌아보는 길이 더 흥미롭다. 일단은 역사 박물관에서 여행을 시작했다. 시대별로 유물이 5000점가량 전시된 이곳은 베트남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보여주는 곳이다.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외관은 독특하게 아름답고, 건물이 감싼 아담한 정원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림이다.

프랑스 식민 시절의 기록을 더듬어 찾아간 곳은 노트르담 성당(Notre-Dame Cathedral)이다. 파리의 노트르담과 이름이 똑같은 이곳은 1880년 프랑스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이다. 두 개의 뾰족한 탑, 성당 앞에서 있는 성모 마리아상, 아치와 장미창까지 구현한 벽돌 건물은 화려함의 정수를 보여준다. 건축 당시 모든 자재를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했다고 한다. 이 신로마네스크 양식 건물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웅장한 건물이 서 있다. 귀스타브 에펠의 작품은 중앙우체국(Central Post Office)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우체국으로 프랑스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규모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둥근 아치로 크게 구획된 내부 역시 볼 만하다. 이곳에선 호찌민 기념우표와 엽서를 구매할 수 있다.



과거는 현재의 밑그림이다. 삶은 역사도, 아픈 역사도, 굴욕의 역사도 그래서 나름의 가치를 갖는다. 호찌민의 거리를 돌아 그곳의 과거를 만났고, 그 안에서 프랑스의 유산을 보았다. 아시아의 파리, 사이공의 애수가 쌓인 거리. 호찌민은 더 이상 슬픈 기억의 도시가 아니다. 아픔을 안은 미래는 과거를 잊은 현재보다 값지고 아름답다. 역사와 문화가 쌓여 만들어낸 오늘이 호찌민에 있다. 그래서 이곳은 아이러니하게 행복하다. 홀로 외로워하면서, 고독에 지쳐 수일을 보내면서 호찌민은 그렇게 스스로 성장했다. 고맙다 생각했다, 건강해서.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스 사이공, 포에버 호찌민.

Ho Chi Minh

과거와/ 현재의/ 만남,

호찌민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인 호찌민. 뜨거운 햇살이 새하얀 프랑스풍 건물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도심 곳곳에 자리한 공원은 한낮의 여유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인다. 거리를 가득 메운 스쿠터의 경적 소리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최신식 고층 빌딩 사이로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 이국적임과 일상적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혼란마저 신선하게 다가오는 호찌민의 즐길거리를 한눈에 소개한다.

호찌민 시내의 주요 볼거리는 중심가에 모여 있어 하루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 명소들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있지만 도로로 돌아보기엔 조금 어려우므로 자전거나 시클로를 렌탈하는 것이 좋다.

일일 시티 투어

10:00 역사박물관 Bao Tang Lich Su ⁰¹

베트남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 중국과 프랑스의 건축 양식을 융합해 지은 외관이 멋지다. 이곳에는 베트남의 문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시대별 유물들이 5000점가량 전시되어 있다. 유물들을 통해 베트남의 전통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인기가 많다.

11:00 중앙우체국 Central Post Office ⁰²

베트남에서 가장 거대한 우체국 • 노트르담 대성당 오른쪽에 위치한, 베트남에서 가장 큰 우체국이다. 에펠탑을 설계한 귀스타브 에펠의 또 다른 걸작. 프랑스로 지어진 건물 외관이 웅장한데 밖에서만 감상하지 않고 안에 꼭 들어가 볼 것을 권한다. 우편 서비스와 국제전화 서비스, 우표와 엽서를 판매한다. 내부 중앙에는 거대한 호찌민 사진이 붙어 있다.

11:30 노트르담 성당 Notre-Dame Cathedral ⁰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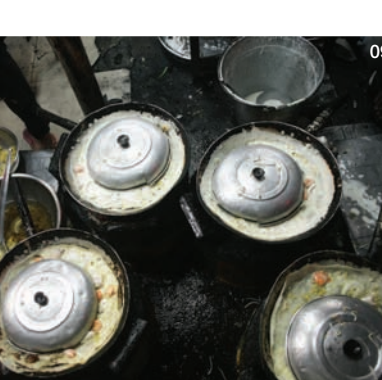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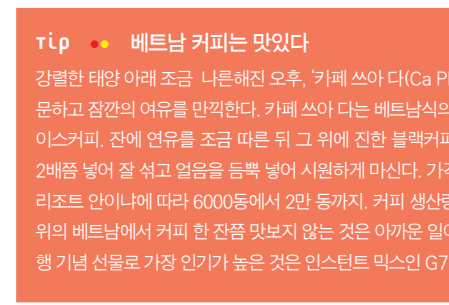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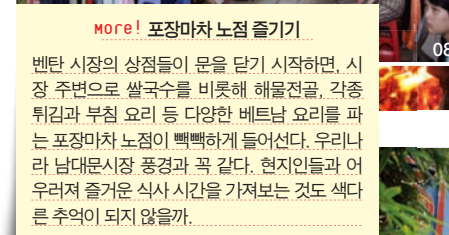
아름다운 프랑스로식 성당 • 중앙우체국 바로 옆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은 1862년부터 1880년에 걸쳐 프랑스인에 의해 건축된 성당이다. 두 개의 뾰족탑, 성당 앞에서 있는 성모 마리아상, 아치와 장미창까지 섬세하게 만든 벽돌 건물은 자재를 직접 프랑스에서 공수해왔다. 화려한 신로마네스크 양식의 외관으로 지나가는 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12:00 통일궁 Reunification Palace ⁰⁴

베트남 독립의 역사적 장소 • 베트남 정부 대통령의 궁으로 사용되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공화국 정부가 항복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다. 지금도 이곳에서 정부의 중요한 미팅이나 행사가 개최된다. 베트남전쟁 당시 작전실로 사용되던 지하 방들을 꼭 구경하자. 전화 08-829-4117 운영시간 07:30~11:00, 13:00~16:00 요금 1만 5000동

13:00 포 호아 Pho Hoa ⁰⁵

이것이 진정한 베트남 쌀국수 • 베트남 현지인이 먹는 '리얼' 쌀국수 가게를 찾았다면 파스퇴르 거리에 있는 포 호아를 찾아가자.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국물 맛이 깊고 푸짐한 쌀국수는 고개가 자연스레 끄덕여질 만큼 일품이다. 식탁 위의 베트남식 바게트 빵을 찢어 먹어도 좋지만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주소 260C Pasteur Q.3 TP. Ho Chi Minh 전화 08-8296-7943 운영시간 05:30~24:00 가격 4만 동부터



14:00 전쟁박물관 ⁰⁶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고 느끼다 • 호찌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 베트남전쟁 당시의 참상을 담은 각종 사진 자료와 숫자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것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전쟁 당시 정치범을 수용하던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감옥도 재현되어 있다. 주소 28 Vo Van, in District 3, Ho Chi Minh City 전화 08-930-6325 운영시간 07:30~11:45, 13:30~17:00 요금 1만 5000동

15:00 티엔 허우사 Chu Ba Thien Hau ⁰⁷

고풍스러운 중국 사원 • 호찌민의 차이나타운인 쩌 런(Cho Lon) 지역에 위치한 중국 사원이다. 19세기 초 광둥 중국인회에서 세운 것으로,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는 여신인 '티엔 허우'를 모신다. 신도들이 소원을 기원하며 달아놓은 중국식 향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천천히 타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운영시간 06:30~17:30

16:00 벤탐 시장 Cho Ben Thanh ⁰⁸

호찌민의 남대문시장 • 신발, 티셔츠, 건어물과 식료품, 가전제품, 액세서리 및 기념품을 파는 상점 4000여 개가 뻗뻗하게 들어선 실내 도매시장이다. 이곳저곳에서 고객을 하는 상인과 관광객의 실랑이가 펼쳐진다. 일반적으로 상인이 부른 값의 60~70%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다. 구경하며 걸다 지치면 골목마다 자리한 음료수 가게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베트남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다. 운영시간 07:00~17:30 찾아가는 법 렉스 호텔에서 남서쪽으로 약 700m

17:30 반 쎬오 Banh Xeo(Vietnamese Pan Cake) 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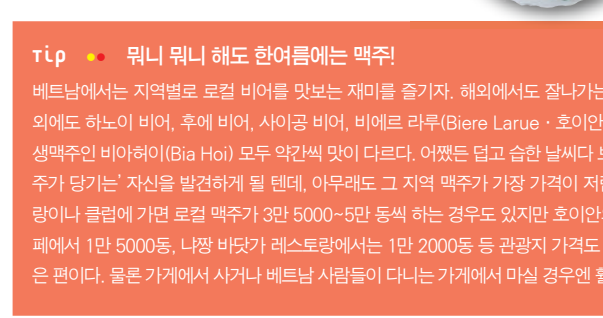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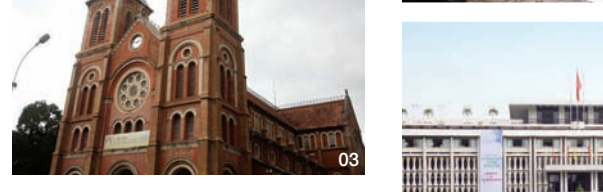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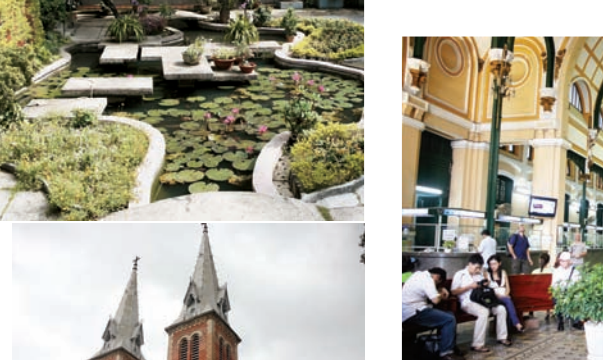
베트남 피자 아세오? • 호찌민에서의 저녁은 베트남식 피자 또는 팬케이크라 불리는 반 쎬오를 먹어보자. 쌀가루에 다진 고기, 숙주, 새우 등의 해산물을 넣고 얇고 바삭하게 구워내는 음식으로 늦은 저녁에는 재료가 순식간에 떨어져 주문하기 어렵다. 주소 Quan 46A Dinh Cong Trang - Q1 전화 08-3824-1110 운영시간 10:00~22:00

18:30 레로이&동커이 거리 Le Loi & Dong Khoi ¹⁰

호찌민의 명동 거리 • 호찌민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다. 레로이 거리에는 고급 호텔과 쇼핑 센터,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쇼핑 및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동커이 거리에는 베트남 스타일의 안티크 상품을 판매하는 숍들이 많이 모여 있다. 쇼핑하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거리다.

19:30 켄백당 Kem Bach Dang ¹¹

푸짐한 아이스크림 가게 • 시민극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무엇보다 딱딱한 코코넛 과일 안에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곳이다. 시즌 과일과 코코넛이 듬뿍 담긴 아이스크림은 먹기도 좋고, 맛도 일품이다. 주소 28 le Loi Q.1 Ho Chi Minh 전화 08-829-2707 운영시간 09:00~24:00



Tip • 뭘니 뭘니 해도 한여름에는 맥주!
베트남에서는 지역별로 로컬 비어를 맛보는 재미를 즐기자. 해외에서도 잘나가는 바바바(333) 맥주 외에도 하노이 비어, 후에 비어, 사이공 비어, 비에르 라루(Biere Larue · 호이안 지역 맥주), 그리고 생맥주인 비아하이(Bia Hoi) 모두 약간씩 맛이 다르다. 어쨌든 덥고 습한 날씨다 보니 여행 중에는 '맥주가 당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그 지역 맥주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클럽에 가면 로컬 맥주가 3만 5000~5만 동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이안의 문화유산 구역 카페에서 1만 5000동, 나짱 비닷가 레스토랑에서는 1만 2000동 등 관광지 가격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물론 가게에서 사거나 베트남 사람들이 다니는 가게에서 마실 경우도 훨씬 더 저렴하다.



세계 트레일과 관광산업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트레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현상은 걷기가 단순한 개인의 취미나 운동을 넘어서 관광산업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제시하는 걷기 열풍과 함께 전 세계 트레일 현황과 잠재력에 대해 살펴본다.

에디터 김수진B



트레일 개발 배경

트레일은 도로를 벗어난 여행 목적의 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져지거나 유지되고 있는 길을 뜻한다.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로, 하이킹이나 사이클 등 레저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길도 모두 트레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에 지쳐가는 지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일상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부추겼다. 이와 함께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사용되는 비용도 적은 걷기의 다양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민간단체 혹은 정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웰빙과 친환경 여행을 실현할 수 있는 트레일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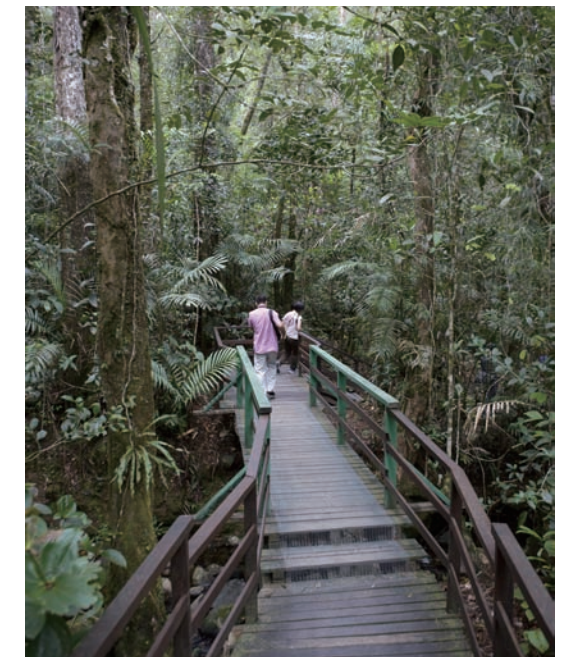
장수 국가로 알려진 일본은 약 4000만 명이 평소 걷기 운동을 즐긴다. 한 사람이 하루에 걷는 거리도 평균 6km나 된다. 이들은 걷기를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의 한 방식으로 여긴다. 걷기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 덕분에 전국 각지에는 '걷고 싶은 거리 500'이 지정됐고,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도로 정비와 이정표도 만들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걷기 운동이 활발하다. 미국의 걷기 문화는 단순한 스포츠·레저 차원에 그치지 않고 비만과 질병은 물론 소외 등의 사회적 병리를 고치는 특효약으로 대접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인의 최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심장 질환을 막기 위해 미 심장병학회는 '스타트, 워킹'이라는 걷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3대 트레일로 손꼽히는 존 뮤어 트레일을 필두로 광활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한 다양한 트레일이 개발되었다. 대한민국도 거센 걷기 열풍에 휩싸여 있다. 2007년 제주 올레가 조성되면서 시작된 걷기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전국에 퍼졌다. 최근에는 매해 300여 개에 달하는 걷기

대회가 열릴 뿐 아니라 동호회도 크게 늘어 대형 포털에서 '걷기', '도보 여행' 등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모임은 500여 개에 이른다. 서점가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걷기 관련 서적이 쏟아지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는 민간 단체뿐 아니라 지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트레일 현황

1940년부터 영국을 필두로 개발된 트레일은 산책, 도보 여행 등 걷는 활동이 증가된 여가를 위한 기반 환경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한 트레일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2010년에는 세계 각국의 트레일들이 협력해 더 나은 트레일을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월드 트레일 네트워크'가 창설됐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 세계 18개 트레일은 매년 컨퍼런스를 통해 월드 녹색 관광산업의 발전과 세계 트레일의 진정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트레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지리산 둘레길 남원·구례·하동·산청·함양 등 5개 시와 16개 읍면, 80여 개 마을을 잇는 대규모 길. 장장 800리(약 314.1km) 길이 지리산 자락을 타고 좌우로 긴 원을 그리고 있다. 자연도 일품이지만, 길을 따라 숨어 있는 작은 마을들을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일본 규슈 올레 최근 조성된 규슈 올레는 규슈 지방의 자연과 독특한 온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개발된 트레일이다. 사가(佐賀), 오이타(大分), 구마모토(熊本), 가고시마(鹿兒島) 등 4개 현에 각각 1개 코스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산촌과 농촌, 고성 등을 즐길 수 있는 오이타 현 오쿠분고(奥豊後) 올레를 비롯해 어촌 마을과 섬 풍경을 따라가는 구마모토 현 이와지마(巖島) 올레, 바다 풍경과 유체가 어우러진 가고시마 현 이브스키(指宿) 올레 등을 만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메실라우(Mesilau) 트레일 메실라우 트레일은 코타키나발루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최고봉인 키나발루 산 정상에 오르는 길. 오래전부터 이용됐던 서밋(Summit) 트레일에 비해 최근 개발된 곳으로, 저지대부터 올라가는 데다 길이 험하고 시간도 더 걸린다. 키나발루 산은 세계적인 동식물의 보고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트레일을 따라 걷는 동안 다양한 식생과 경관을 만날 수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선호한다.

트레일과 관광산업

자연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현지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 각국의 트레일로 향하는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트레일은 해안가나 사막, 산 혹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을과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이점으로 트레일을 찾는 여행자들이 많아질수록 소외됐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트레일이 관광산업을 촉진시킨 예로 대한민국 걷기 열풍을 주도한 제주올레를 들 수 있다. 제주올레는 제주 여행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레길이 생기기 전에는 단체 여행이 주를 이뤘던 제주도에 개별 여행자들이 늘어났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현지 지역 경제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재래시장 매출은 17% 이상 증가했고, 버스 이용객 역시 400% 이상 증가했다. 적자로 일



관했던 시외버스터미널도 후자로 돌아섰다. 관광산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트레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

트레일 개발에는 기본적으로 보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자연과 지역 주민들의 삶 그 자체가 여행의 이유가 되는 트레일 관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레일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태 관광이다. 생태 관광이란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관광을 뜻한다. 관광산업에서 최근 들어 성장하고 있는 틈새시장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관광과 달리 원칙에 의한 차별적 운영이 필요하다. 생태 관광의 원칙으로는 여행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환경적·사회적 풍토를 고려한 여행을 제시하며,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 등이 제시된다.

트레일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관리는 생태 관광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자칫하다가는 관광의 목적이 되는 환경을 오히려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트레일을 보호하는 일은 다가올 미래에 트레일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Reference
World Trail Network www.worldtrail.org
Sportnest www.sportnest.kr





광저우, 중국

TPO Travel Trade 2012 - CHINA 성공리에 개최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중국 광둥 성 광저우 시에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기구(TPO)의 중국 해외 공동 마케팅 행사인 'TPO 트래블 트레이드(Travel Trade) 2012-차이나(China)'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TPO의 한국 회원 도시인 부산, 군산, 경주, 인천, 익산, 전주 총 6개 도시가 참가해 각 도시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3월 2일 광저우 시 여유국 회의실에서 TPO 관광교역상담회를 진행했는데, 중국 광둥 지역 현지 여행사의 상품 개발 담당자들을 초청해 해당 도시의 관광 자원을 상세히 소개했고, 여행사의 관광 상품 개발과 고객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광둥CITS, 광저우 여행사를 비롯한 중국 광둥 지역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과 광둥 지역 언론 매체, 광저우 시 여유국 리지 신 국장, 자오칭 시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TPO는 광저우 국제관광전(GITF)에 참가 도시 공동 부스를 운영해 현지 방문객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GITF 베스트 서포터 상을 수상하는 등 현지의 주목을 받았다. TPO는 지난 4년간 중국 해외 공동 마케팅을 통해 광둥CITS, 광저우여행사를 비롯한 중국 광둥 지역 여행사와 협력해 회원 도시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제20회 TPO 운영위원회 중국 광저우 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20회 TPO 운영위원회가 중국 광저우 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광저우(중국), 산야(중국), 부산(한국), 대전(한국), 가고시마(일본), 호찌민(베트남), 이포(말레이시아),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타이난(타이완), 그리고 코타바루(말레이시아) 10개 도시에서 45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3월 29일에 개최된 회의를 통해 타이난(타이완)과 코타바루(말레이시아)의 신규 회원 가입이 승인됐고, TPO 사무국이 제안한 2012년도 예산안 수정, TPO 프렌드십 이벤트(Friendship Events) 지정 및 TPO 프렌드십 파크(Friendship Park) 조성 안이 승인됐다. 차기 제21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제5회 TPO 포럼 기간 중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익산, 한국 TPO 한국 회원 도시 2012년 상반기 지역회의 개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TPO 한국 회원 도시 2012년 상반기 지역회의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 전주, 대전, 광주, 안동, 경주, 영주, 강릉, 익산, 춘천, 남해, 창원, 거제, 부여 및 부산 중구 총 15개 회원 도시가 참석했다. 23일 열린 회의에서 TPO 사무국의 주환명 사무총장은 2011년도 TPO 활동 보고 및 2012년 TPO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TPO 회원 도시 상호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TPO 회원들이 TP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이어 이날 참가한 각 회원 도시가 올해 계획된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익산시 유기상 부시장도 참석해 익산시가 가진 역사적·문화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24일에는 익산시 문화관광과 최인경 실무관이 익산시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 도시 대표자들이 익산시의 관광 자원과 관광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이 진행됐다. 한편 2012년 한국 회원 도시 하반기 지역회의는 10월 대전 시에서 개최되며, 일본과 중국 회원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페낭, 말레이시아

TPO 사무국, 제5회 TPO 포럼 개최 협의를 위해 페낭 시 방문

3월 7일부터 9일까지 TPO 사무국의 박순재 사무차장과 이소정 기획팀장이 9월에 열릴 제5회 TPO 포럼 개최에 앞서 개최 준비 협의 및 현지 시찰을 위해 말레이시아 페낭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TPO 사무국 일행은 파타히야 빈티 이스마일(Ar. Patahiyah Binti Ismail) 페낭 시장을 비롯한 페낭 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5회 TPO 포럼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말레이시아 페낭의 베이뷰 비치 리조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페낭 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 제5회 TPO 포럼의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확정 후 공지될 예정이다.



중국

TPO 사무국,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 및 간쑤 성 여유국 방문

TPO 사무국의 주환명 사무총장과 박순재 사무차장이 중국공청단(중화청년연합회)의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 초청으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 시와 간쑤 성 란저우 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TPO 공동 사업인 학생 여행 교환 사업(STEP)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청소년 교류 핵심 부서인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TPO 민간 회원인 부산관광고등학교와 중국 제1의 명문 직업학교 베이징 창핑 직업학교와의 교육기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국 서북 지역의 TPO 회원 도시 확장을 위하여 간쑤 성 여유국을 방문해 TPO 기구 소개와 공동 사업을 홍보하고, 중국 서북 지역 도시들의 TPO 참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공청단은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총리를 배출한 중국 명문 엘리트 그룹의 산실로 TPO와는 2010년 부산세계불꽃축제에 함께 참여한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향후 STEP 사업 및 문화관광 교류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간쑤 성은 중국 고대 역사문화의 보고로 각종 역사문화 자원은 물론 특수한 지형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자연관광 자원을 함께 보유한 세계 역사문화 관광의 중심지다. 간쑤 성은 향후 한국의 주요 도시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 간쑤 성 관광 자원 홍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야자키, 일본

TPO 사무총장, 일본 미야자키 시 방문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TPO 사무국의 주환명 사무총장과 윤영수 마케팅 팀장, 공식 아킴T&C 대표이사 가 TPO 회원 도시인 일본 미야자키 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TPO 사무국 일행은 21일 미야자키 시청에서 다시 도지키 미야자키 시장과 만나 TPO 활동과 TPO 여행사 네트워크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검토 중인 부산-미야자키(남규슈) 간의 전세기 운항과 관련해 미야자키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시장 면담 후 개최된 부산-미야자키(남규슈) 노선 전세기 사업 관계자 회의에서는 미야자키 시(관공과, 기획정책과), 미야자키관광협회, 미야자키현(관광추진과, 종합교통과), 미야자키관광컨벤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2일에는 미야자키에 본사를 둔 항공사인 솔리드 항공(Solaseed Air)을 방문해 부산-미야자키 노선 전세기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현재 TPO는 부산-미야자키 노선의 전세기 운항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측 협력사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시디 빈 하심 말레이시아 이포 시장

말레이시아 이포 시가 '2012 페락 주 방문의 해'를 맞아 이포 국제 달리기, 국제 유스 열대우림 탐험 등 다양한 국내외 행사로 여행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반의 계획을 세웠다. 말레이시아 이포 시의 로시디 빈 하심 시장을 만나 관광 도시로서 이포 시의 비전에 대해 들었다.

에디터 김수진

TPO 회원 도시 관계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이포 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포 시는 말레이시아 주요 도시입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중 페낭과 쿠알라룸푸르 중간에 위치하지요. 면적은 643km²이며 인구는 약 72만 명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주석 생산지로 '주석으로 형성된 도시'라는 별칭으로 불렸지만, 1970년대 주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사실상 도시 발전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페락 주 정부와 이포 시 행정 담당자들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도시는 행정과 서비스, 상업, 산업 중심지로 확대됐지요. 현재 이포는 생태 관광지로써 막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페락 주의 관광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지로서 이포 시가 가장 자랑할 만한 관광 명소는 어디일까요?

이포 시의 가장 큰 매력은 거대한 석회암 언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 풍경입니다. 이포를 둘러싸고 있는 석회암 언덕에 2억 5000만 년에서 3억만 년의 세월이 걸쳐 자연스레 형성된 동굴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구아 텀푸롱(Gua Tempurong), 푼카(Puncak) 동굴, 삼 포 통(Sam Poh Tong) 사원, 페락 통(Perak Tong), 케 록 통(Kek Lok Tong) 사원, 구아 탐분(Gua Tambun), 구능 랑(Gunung Lang) 공원, 물놀이 테마파크인 '로스트 월드 오브 탐분(Lost World of Tambun)'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독특한 곳을 꼽으라면 숨 막히는 풍경을 선사하는 반자란 온천지(The Banjaran Hotspring Retreat)입니다. 이포 시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페락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면, 1억 3000만 년의 역사를 지닌 로열 브룸(Royal Belum)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가장 이국적인 야생 동식물의 낙원이죠. 관광 명소는 아니지만 '하나의 말레이시아'라는 정신 아래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등 세 주요 민족 집단과 시크교도(Sikh), 말레이 토착 원주민(Orang Asli), 이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공동체는 이포 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죠.



올해는 '2012 페락 주 방문의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포 시에서 특별하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포 시는 '2012년 페락 주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 행사 3개를 포함해 총 12개의 이벤트를 계획 중입니다. 이포 시가 조직한 국제 행사는 매해 개최되는 이포 국제 달리기 대회(Ipoh International Run)와 페락 생태 관광 FAM 투어(Perak Eco-Tourism Familiarization Tour), 국제 유스 열대우림 탐험(International Youth Rainforest Exploration)입니다. 페락 생태 관광 FAM 투어는 TPO와 함께 9월 10~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포 국제 달리기 대회는 매년 7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는데, 올해 대회 날짜는 7월 1일로 참여를 원한다면 홈페이지(www.mbi.gov.my)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이포 시를 찾는 여행자에게 권하고 싶은 전통 음식과 축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포에서 맛볼 수 있는 유명한 음식은 렌당 톡(Rendang Tok, 코코넛 소고기 조림)과 빈 스프라우트 치킨(Been Sprout Chicken, 삶은 닭고기와 콩나물을 국수와 함께 먹는 음식), 그리고 딤섬과 짬조름한 닭, 카창 푸티(Kacang Putih, 양배추 고기)일 것

입니다.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등 세 민족의 식재료가 혼합되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지요. 이포는 화이트 커피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며, 감귤류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포멜로(Pomelo)는 이포의 특산 과일입니다. 이포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3개의 주요 축제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라마단 단식 월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슬라맛 하리 라야 아이딜 피트리(Selamat Hari Raya Aidil Fitri)입니다. 이외에 중국의 음력 새해(新年快樂, Xin Nian Kuai Le)와 힌두교 빛의 축제인 디파발리(Deepavali)가 유명하지요.

제20회 TPO 운영위원회에서 이포 시가 제안한 '국제 생태 관광 FAM 투어'가 TPO 우호 증진 행사의 일환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포 시가 FAM 관광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포 시에서 생태 관광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포 시는 열대우림, 석회암 언덕, 맹그로브 늪지대, 조류 보호구 등 수많은 생태 관광 자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TPO 회원 도시와 함께 우리의 생태 자원을 나누고 싶고, 이포를 위시한 페락 주를 생태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 대신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할 것입니다. 특화된 생태 관광 브랜드로 발전해나갈 이포 시를 기대해주시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광 도시로서 이포 시의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포 시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있음에도 해외 관광객들에게 아직 낯선 도시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에게 환상적인 풍경, 맛있는 음식, 역사, 자연, 페락 주 생태 관광 중심지로서 특별한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포 시가 되겠습니다.

남만과 모험의 도시, 말레이시아 이포

부겐빌레아(Bougainvillea) 꽃이 만발한 이포는 말레이시아의 오래된 도시다. 주석 산업으로 번영했던 위성은 한풀 꺾였지만 말레이·중국·인도 민족이 어우러져 엮어낸 다양한 도시 풍경과 문화는 이포를 스쳐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에서 꼭 들리고 싶은 여행지로 거듭나게 한다. 석회암 지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로운 동굴, 말레이시아에서도 으뜸이라는 미식 요리, 고급 골프 리조트와 국제학교, 구시가지, 대형 쇼핑몰은 낯선 길을 찾는 모험가들의 다음 여행지로 추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홈페이지 www.peraktourism.com